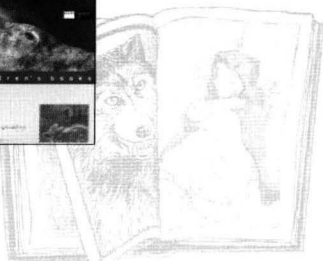


**환경의식 고취시키는 짧고 간결한 사전**

《초록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나카 아키요시 글 |  
아머우치 마스미 그림 | 박지민 옮김 | 황매 | 84쪽 |  
값 7,500원

“이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 분리수거 시행 이후 쓰레기통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당장은 귀찮지만 생활쓰레기가 줄고 주변 환경이 정리되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 책은 회색 도시를 푸르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지구환경사전입니다. 작고 얇은 책인데 두꺼운 책 못지않은 정보량을 자랑하지요. 국제기구 친선대사인 저자는 환경에 관한 주장이나 권유 대신 지구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구 생일은 1월 1일, 인류 생일은 12월 31일 55분이란 사실부터 1분마다 21명의 어린이들이 5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통계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언급되는 통계 숫자만으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판형이 작고 얇아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펼쳐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사전과 친구해 보세요. 짧고 쉬운 문장들 곁에 놓인 환경 주제의 장난스런 그림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 늑대가 사냥감이 된다는 줄거리와 반대로 글 곁에 그려진 악보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름다운 연주소리를 들려주고 있지요. 아름다운 연주 곁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는 늑대의 슬픔 그리고 인간의 잔인함이 극대화됩니다. 웅만한 철학서, 문학작품 못지않은 메시지와 감동을 전하는 책입니다.

**확신 있다면 날개 펼쳐보아요**

《발랄라이카를 연주하고 싶은 늑대》 존 버닝햄 글·그림 |  
장미란 옮김 | 논장 | 32쪽 | 값 9,500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갈등의 소재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늑대는 음악으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합니다. 여관에서 생활하는 트루블로프는 밤마다 모여드는 떠돌이 집시들의 발랄라이카(우크라이나의 민속 악기) 연주에 감동받아 연주자가 되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잠은 안 자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트루블로프의 마음은 엄마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뜻을 펼쳐보는 삶 쪽으로 향합니다. 결국 떠돌이 집시 할아버지를 따라가 연주법을 배우지요. 어떤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책임질 만한 의지가 있다면 열정을 불태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주인공 늑대는 집으로 돌아와 명연주를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나운 늑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을 사랑한 늑대》  
크리스토프 갈라츠 글 | 마샤 아리스만 그림 |  
차미례 옮김 | 마루벌 | 40쪽 | 값 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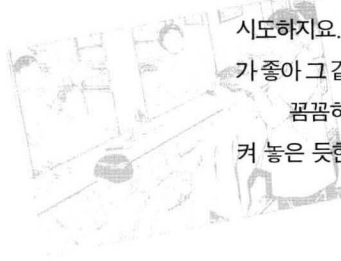
아수는 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흉한 외모 때문에 아수가 미녀를 해칠 것이라고 짐작하지요. 오해와 편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관념, 도덕적 잣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줍니다. 스토리는 그림 형제의 빨간 모자 이야기를 변형합니다. 산 속에 들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녀 곁에 늑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늑대가 소녀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늑대사냥을 시도하지요. 늑대는 소녀의 바이올린 연주소리가 좋아 그 곁에 다가온 것인데 말입니다.

꼼꼼히 읽다보면 일종의 희비극을 공존시켜 놓은 듯한 특별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

**아버지, 긴 세월 오해를 풀고 당신께 인사합니다**

《아버지》다니구치 지로 글·그림 | 신준용 옮김 |  
애니박스 | 280쪽 | 값 8,500원

평생을 이발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 주던 아버지가 어느 날 세상을 등집니다. 무뚝뚝함으로 일관하며 오직 일에만 빠져 지낸 아버지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아들은 그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아버지 얼굴을 늦게나마 바로 쳐다보게 되지요. 그 얼굴 속에는 뜻외리 대화재를 계기로 어머니와 이혼한 후 남모를 고민들을 안고 살아온 아버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만화가 다니구치 지로는 아버지의 임종을 계기로 자신의 뿌리이기도 한 아버지의 고향을 찾는 아들의



이야기를 군더더기를 쏙 뺀 탄탄한 이야기 구조로 그려 나갑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온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이혼까지 하게 된 아버지 내면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아이들로 들려주고 있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나눈 후 아기가 엄마 속 속에 들어가고 자라는 과정, 아기가 나올 때의 상황까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과학적인 정보들을 발랄한 문체와 실험성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배움의 즐거움, 할머니도 알았어요**

《바뀌 버린 성적표》 김혜리 글 | 최민오 그림 | 주니어김영사 | 102쪽 | 값 8,000원

배움에도 나이가 있다고들 하지만 한편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나이에 연연했다가는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배움거리들이 있는 세상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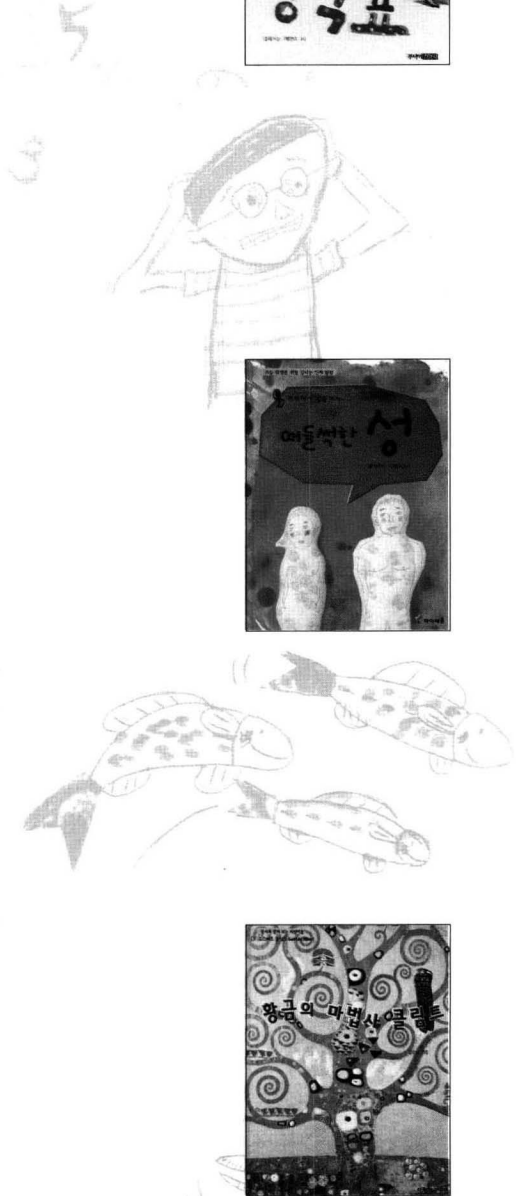
이 책은 일흔두 살 석이네 할머니가 뒤늦게 대학생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방송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된 할머니에게 공부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나와주질 않지요.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고 기분이 상한 할머니를 본 석이가 성적표를 바꿔놓는 계획을 짜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석이는 성적이 아닌 다른 것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해하지요. 배움에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게 되는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 공부는 물론이요 야구까지 하며 젊은이 못지않은 젊음을 보여주는 할머니 캐릭터가 인상적입니다.

**그림 한 장, 제대로 보면 시인이 됩니다**

《황금의 마법사 클림트》 김순희 지음 |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 | 다빈치기프트 | 28쪽 | 값 8,500원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라고들 하지요. 한 장의 그림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 냅니다. 이 책 역시 그림에서 느낀 감정과 인상들을 시로 길어 올린 결과물입니다. 작가에게 영감을 준 그림은 노란색을 주로 사용해 황금의 마법사로 불리게 된 화가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저자는 그림을 걸어두고 그것을 단순히 해석하는 형식을 버리고 시 한 편을 창작하며 그림을 소개합니다. 가령 《모자를 쓴 여자》를 보면서 "눈 흘기지 마!"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여자를 쳐다보는 남성들의 시선에 일침을 놓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의 그림을 놓고는 "새하얀 드레스, 살짝 벌린 미소, 발그스레한 뺨"이란 표현도 만들어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그림 해석을 과감히 탈피하고 그림의 다의적인 해석을 시로 표현한 독특한 글쓰기입니다.

김청연 기자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란 말은 이제 그만!**

《떠들썩한 성》 허은미 글 | 이진아 그림 | 아이세움 | 56쪽 | 값 7,000원

아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란 말로 자녀들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얼버무리시는지? 그렇다면 별나라 공주를 주인공으로 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짝을 찾아 지구에 내려온 별나라 공주. 공주를 따라 우리 몸과 관련된 생명탄생의 비밀을 상세히 캐내는 이야기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성교육서를 상상한다면 놀랄 독자들이 많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책에서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몸에 관한 지식들을 유머러스한 이

